



講義室·圖書館에 점은 热氣가 넘친다

언제나 滿員사례

가을과 함께 東國人의 발걸음도 바빠질것이다. (사진은 방학중의 도서관과 특강실의 모습임)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과 씨를 하며 내면의 암식을 살찌게 했던 학생들에게 다가온 가을은 그루 엉보다 한기를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할 것이다.  
요즘 東國人의 면학열을 불황에 따른 求職難에서 나온 救弊의 일환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다만 그렇자 即刻해 그들이 저서가 냐부도 진지하다. 東國人이 충고한 상아탑에서 세태에 금방 훌쓸리는 「인스탄트」 式의 지식 설파가 아닌 학문을 순수하게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차세가 염보여 부었보다 밤같다. 이별로 언제부턴가 요란스럽게 벌써 타오르며 물지 않고 조용히 벌써 타오르

조용히 번져 타오르는 勉學意志가 밑음직스럽기만…

려운 東國人이 정말로 부끄러워 가득 눈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 自己省  
察을 통해 「나」를 찾는 가들이 되었으면 한다.

새벽에 열리는 東岳의 門、不夜城을  
이루고 있는 圖書館、땀흘리는 教授、  
숨죽여 귀 기울이는 弟子가 있는 진정  
한 學問傳受의 강의실—이것이 올가을  
東岳의 風俗圖 이리라.

요즘 東臺의 門운 늘 새벽에  
들립니다. 온전 8시가 되기 전에  
미 짹차 버리는 도서관, 새벽  
● ● ●  
는 東國주의 면학영을 헬교당에  
운 지켜만 보지 말고 불길에 기  
를을 봇고 바람을 막아주는데

나는 특강 講師 앞에 누웠을 때 번  
이미 운집해 있는 학생들.  
어느 해보다 짜증스런 며위가  
사흘을 부렸던 지난 여름이었지  
그 많은 東國人은 폭염을 피하  
지 않았고, 그보다 더 뜨거운 學  
습실에 까지 신경을 써야 할 때

부터도 東岳의 뜨락은 학생들이 점점  
더워를 불러야겠다. 放學중  
열기가 있어 물어지지 않고  
그러웠다.  
상사활동과 담사, 기행 및 피서에  
관련도 大學人에겐 필요한 것이  
그것이 學問의 기초이며 자  
신의 사고형태와 행동방법을 넓  
히는데 활용된다면 뛰어는 일  
뿐이다.

마침내 가을이 오고 이 가을이  
머무는 동안 東岳에는 활동한 작  
치가 열릴 것이고, 東國人은 학  
문의 깊은 끝으로 더욱 뚫임없이  
들어갈 것이다. 가을의 문학에서  
모든 行事나 講義, 그리고 東國  
인이 하는 일들이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면 한다. 그려 기와  
해서는 東國人의 진지한 노력,

그러나 도서관에서 책과 써를  
이며 내면의 암시를 살지게 했던  
인생들에게 다가을 가을은 그루  
자보다 항기롭고 소중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요즘 東國人의 면화열매를 경제  
활황에 따른 求職難에서 나오는  
것이다.  
비정직적인 열매를 거두는 부기  
러운 東國人이 정말로 부끄러워  
생각을 갖는 우리 모두 己己省  
察을 통해 「나」를 찾는 가을이 되  
었으면 좋다.

만 그럴지 단정하니 버리기엔  
둘의 자세가 너무도 진지하다.  
國人이 송고한 상아탑에서 세  
에 금방 훨씬리는 「인스탄트」  
의 지식 섭취가 아닌 학문을  
우하게 학문으로 받아들이는  
여보여 무엇보다 바깥다.  
새벽에 열리는 東岳의 門 不  
夜城를 이루고 있는 圖書館  
리는 교수가 있고 숨죽어  
울이는 弟子가 있는 전정한  
傳授의 강의실. 구길살없이  
가는 천년의 기개—이것이 바로  
다가올 風俗圖가 될것이다.

東友會報

發行人 鄭在哲  
編輯人 尹天冰  
印刷人 李揆行

發行人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  
3街26 東國大學校 内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267) 8568  
交換 (267) 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1급 차동차 정비공장 견인차 주야 태기  
현금무  
문래동  
정비단지 635-12828 365-113

# 가구·월대장식 미래의 신부들에게..... 서울미포구서교동 37-4 TEL 33-83-86-415

칼라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 P-A 칼라 종합현상소  
한국 사진학원  
점로 2가 파고다 아케이트 앞  
TEL. (73) 3018 (74) 3018  
동문 특별불사

▲ **張寧植**『직장생활을 하다보면 특히 동료끼리 많은 비교가 되는데 회보가 나오고 있다는 그자체만으로도 큰 자위를 하고 싶어요. 사실많은 대학들이 있으면서도 몇몇대학을 제외하고 회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 마치 회보가 교세를 저울질하는 것같은 생각을 갖게 되지요.

◆ **司會**『사실 동우회보는 꾸준히 출연생활을 통하여 한석구로 연결되는데 큰 통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면에서는 동문들의 결속력에서도 회보가 중요해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방향도 동문들을 꾸집어 일이될수있는 내용을 많

이것은 신분의  
생자도 그들을  
져야 한다는 말인데  
기획 및 평전방향에 대해서 좋은의  
견을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 李莘弘 ─ 제경우 회보를 볼때마다  
느끼집의 비교적 특정한 사람들의  
활동모습이 자주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 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속참  
여하는 느끼를 주기보다는 각계에  
서 알려지지 않고 이를 모르는  
럼 목도히 활동하는 동료들이 모

요. 더불어 「海外欄」을 활용하여 해외동포들의 활약상, 해외유학생들의 글을 신나면 이것은 재학생들이나 게도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해요.

그래도 東友會報가  
하지 않거, 詩拉登지, 수필, 편집, 편집부  
부불후문... 立志傳道을 고루 표용, 게재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회보로 1장이 끝없는 東國 P.R. 역할을 특히  
통히 내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 成百幸이 회보의 기본방향이 모  
교발전의 선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명연한 귀결입니다. 말하자면

부분이 어떤 상황인가  
보였어. 회보도 신문에는 를  
없는데 동성사회의 소녀, 모교의  
탁자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야된다고 강조하고 싶었어.  
▲ 사회지로서 전시한 회보를  
만들자는 좋은의견이 많이나왔으나  
다. 다음으로는 회보제작에 대한  
충. 특히 재원확보문제에 대해서 이

을  
보이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현하지 못하고, 설령  
독립자 산재에  
유료화로 운영한다고  
은 있거나 생각돼요. 그러기  
해서는 먼저 국내외에  
6 萬ドル를의  
자금을  
진척해 나가야겠지요.

못할 경향을 생기게 되어죠. 자금 지 회보에 광고가 빙약했던 것과 스폰서기금이 주원인인 아닌 요. 앞으로 광고 스폰서를 나아가 동물들이 있다면 내는 증대시킬수 있다면 鋪上添花했어요. 사실 동물들 거의가 보구독료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年會費를 모교와 동창회 회보에 관심있다고 고취도되고 고려되니까 참여의식

고 東國의 주인의 소수를 갖도록  
야겠어요. 아울러 여러분가지 美談  
취미、家訓、「보람에 산다」 등의  
회도 확충해줬으면 합니다.  
**◆司會** || 오랫동안 좋은 말씀  
해주시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회를 제기로 보다 많은 동포들이  
여어서 우리 스스로의 얼굴인 「友會報」을 키워가도록 노력하  
다.

끄臾없는 友情의 梶橋役에 最善을



◇회복의 앞날을 제시하는 좌답회광경

△ 참석자 △

△禹國·부회장  
△金定基동문  
△睦鎮夏동문  
△宋在甲동문(司會)  
△張亨植동문  
△白京男동문  
△成百幸동문  
△吳仁煥동문

△李啓弘동문  
△吳仁煥동문

△78월원·保陝公社부사장  
△48전문·國防부참사관  
△50전문·大韓特리뷴기자  
△59전문·도교문화대교수  
△60정지·금강률수인쇄會長  
△65정의·도교법전대교수  
△66경영·대지운수전무  
△69기문·스포츠賣賄기자  
△70행정·오이씨과광이사

.....

엔 너무 무리예요. 따라서 회보  
작 보조역할, 또는 편집전문인을  
갈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새사람을

◆宋在甲唇  
◆張亨植唇

◆ 金定基=물론 광고스폰서를  
이 구할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吳仁煥(吳仁煥)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회보에 광고하나가 나같으니마는' 동문들이企業광고란을 대폭확대' 강화해 나가는 것이 재원 확보에 장 큰 보탬이 될것으로 여겨집니다. 다. 가령 신문1회제작에 스폰서 3~4명만 확보하면 독자체산제는 자동으로 이뤄지지'

▲司會=마지막으로 創刊5주년

## 記事提報·廣告게재에 적극참여 절실

각종 캠페인으로 모교發展等 先導해 나가길

폭넓은 取材로 說得·친화력創出해 야

시절에서 회보가 나가야 할 바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그방법론까  
제시해주시신다면 고맙겠습니다.  
**▲成百幸**이까 말씀드렸습니다  
만=增面·増部에 대해서한 말씀  
된다면增部는 통로조사가 파  
되는데로 부수를 증가할수 있  
지만 증면문체는 현재의 편집을  
力·財政·뉴스源流을 신중하고  
되도록 부수를 증가합니다.  
물론 紙面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줄이라도 더 소식을 듣는 셈이  
지만, 같은 내용을 억지로  
키는점을 경계해야 되지요. 앞으로  
원수가 더욱 불어나고 또 통증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면增面을  
으로 되어지리라고 볼니다.  
**▲白京男**=會報의 역할이라면  
시 회원상호친목과 도교발전 기  
사업에의 종매역할이라고 봐야겠  
요.  
그럼점에서 「동문학기(同文)」이나  
학시전개」 등의 캠페인을 엄마  
들은 일이죠. 아울러 동창회나  
보가 東國의 건설적인 면을 지  
하자는 것이므로 재학생들에게도  
온 신경을 써줬으면 해요.  
**▲李啓弘**=저도 같은 생간인에게  
報가 여러 가지 좋은 캠페인을  
일수 있는 強點을 잘 활용해주기  
라고, 통분들간에 서로 도움을  
수 있는 일, 나아가 불후한 재  
도할수 있는 등의 캠페인은 도  
들의 공감을 얻을수 있을 것으  
불니다. 그리고 이기회에 부탁이  
참회·학생·학교 담당이 트리오가  
어 교세 확장을위해 중정인·直政  
함께 활약으로 유대가 이뤄져  
면해요. 밖에서는 東國을 둘  
직해 주길 바라는거예요.  
**▲成百幸**=또한 우리 報가  
국내외조지별 장학금 유도와 대회  
우동선수들의 사기진작 등을 이  
제도 랑원 지혜를 짜줬으면  
요.



## 新刊 소개

## 「共產主義이론과 현실」

李茂雄 동문

李茂雄(63 정치·교양학) 동문이 「공산주의이론과 현실」이라는 저서를 내놓았다.

공산주의 사회에 있어서 그 이론과 실제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이론자체의 도순성과 비논리적인 혁명성을 강요하는 목적의 설정, 또 그들이 완벽하다고 강조하는 세계평화명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무부모별한 시도 등을 갑안하여 공산주의의 본질, 이론의 구조, 공산당의 행동지침 등을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大旺社刊·3천 5백원>

## 「海外旅行英語가이드」

金奎滿 동문

金奎滿(64 영문·美洲生活연구원장) 동문이 해외여행에 필수적인 영어회화 내용을 안내서로 편집, 저술한 「海外旅行英語가이드」가 나왔다. 出入國手續·機内방송안내·비행기·호텔예약·投宿·길·문화·관람·식당출입·쇼핑등에 필요한 말을 테이프에 수록하고 있다. <美洲生活연구원刊·테이프포함 1만 4천 5백원>

## 「組織行態論」

朴瑾浩 동문

朴瑾浩(70 행정·政博·모교행정대학원學監) 동문이 대학강의교재인 조직행태론(모형과 분석)을 펴냈다. 전 3편으로 나눠진 이책의 제 1 편은 인간과 조직행태의 분석을 위한 순수이론모형으로서 주로 행態論, 機體論, 現象學의 방법론에 바탕을 둔 인간행태와 조직행태의 일반분석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제 2·3 편에서는 욕구와 동기이론에 입각하여 공무원과 산업종사자의 행태를 실제로 조사분석해 주고 있으며, 아주쉬운 통계적분석으로 이해를 돋고 있다. <高麗苑刊·5천원>

## 「어둠을 빛이라…」

崔淳烈 동문

崔淳烈(72 國文·상명여고교師) 동문이 처녀시집 「어둠을 빛이라 불러라오」를 내놓았다. 본보에 실렸던 「꿈마다」를 비롯, 「조난」「아무래도」「풍경」「일찌기·非情전자」 등 50여편의 작품을 실었는데, 崔동문은 後記에서『첫 시집의 조바심은 또 다른 용기의 발임을 분명히 약속하고 싶다』고 계속적인 <도서출판 모음사刊·1백22면·1천 8백원>

【名門東大】 육성의 의지는 달라진 면학풍토에서 기대할 수 있을까?  
 지난 8월 20~22일 까지의 2학기 풀집을 시작으로 학을 맞게 된 모교는

교 第7代 講師護國團

이 8월 31일 인수인계를 끝내고 9월 1일부터 정식 출

법한다.

지난 7월 20일 선거에서

총학생장에 당선된 金洪千

(法政大·警行3) 군은 「東

國人 모두의 주인 의식이 아

쉽다」고 전제하고 「卑(卑)

은 전통을 바탕으로 활성

자재로 공식 중이다.

신임 학생간 부

평단은 다

을 과 같다.

▲ 출학생장 金洪千(경행)

3) ▲ 부학생장 ▲ 총무

부장 장만이(行政3) ▲ 회

원부장 이채우(통제3) ▲ 문

문예부장 박종열(국립3) ▲

▶ 문예부장 박종열(국립3) ▲